중국어 표준화정책 연구

김 중 섭*

目 次

I. 서론
II. 공용어의 연혁
1. 관화
2. 국어
3. 보통화
III. 발음기호의 제정
1. 주음부호
2. 로마/라틴식 표기법
3. 한어병음방안
IV. 한자의 간화
V. 결론

I. 서 론

2001년 여름, 중국은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확정되고 2008년 하계올림픽을 북경에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등 두 사건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국의 언론 매스컴도 앞다퉈 중국특집을 내놓아 중국열풍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중국열풍에 편승하여 중국어를 학습하려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중국어인가?보통 "모 언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말, 口頭語)와 그것을 기록하는 문자(글, 書面語)를 포함하는 廣義的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국어"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공용어로 사용하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고 있는 "보통화(普通話)"와 표준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간체자(簡化漢字)"다. 그럼 이 "중국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 혹은 제정된 것인가?

언어와 문자는 인류가 의사소통 및 기록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였고, 의사소통 하고자 하는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규범화된 공용어가 형성된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화, 경제발전, 국민통합 등 다양한 목적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공용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근대국가에 있어서 언어정책은 국가통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도 1911년 중화민국 정부 수립이후, 곧 정부차원의 표준어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국어"에 대한 인식을 한층 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어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공용어의 연혁

1. 官 話

중국은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아 언어는 매우 다양하게 분립되어 있다. 漢族이 아닌 소수민족의 언어는 논외로 하고 漢族이 사용하는 漢語의 방언만 하더라도 최소한 北方官話, 吳方言, 湘方言, 贛方言, 客家方言, 粵方言, 閩方言으로 나눌 수 있다.[1] 각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며 상호간의 교류에 많은 장애를 가져왔다.

근대이전까지 다행히 중국에는 통일된 문자인 漢字가 있어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통치자의 행정언어인 "官話"가 공용어의 역할을 했었다. "官話"란 말 그대로 官廳에서 쓰는 말로 수도인 北

1) 胡裕樹 等編, 허성도 譯, 『現代中國語學槪論』(교보문고, 1994), pp.19-21.

京지방의 방언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다. 비록 극소수의 지방 관료, 상인 계층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지만 당시 수도의 방언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언어였고 이후 표준어의 기초가 되었다. 또 滿淸의 관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서양인이 이 언어를 "mandarin"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표준중국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봉건왕조의 정부는 이러한 행정용어를 일반 민중에게 보급하지 않았고 또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청나라 말기 중국이 계속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의 부강을 위해 나라의 말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언어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 관리의 추진에 힘입어 1903년 청나라 정부에서 정한 『學堂章程』에는:

" 세계 각국의 언어는 전국이 모두 일치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민간에서는 서로 다른 토어를 말하고 있어서 같은 省의 사람도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고 있으니 일 처리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 官音으로 천하의 언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고로 사범학교와 高等小學堂에서 일률적으로 「國文」과목 안에 官話 과목을 부가시킨다"라고 규정지었다.

이로부터 언어통일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王照, 盧戇章, 朱文熊 등 학자들은 "京音官話"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朱文熊은 또한 최초로 "普通話"라는 개년을 제시한 사람이기도 하다.[2)]

청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이런 국어통일운동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표준어라는 개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2. 國 語

中華民國이 건국한 후에도 표준어 제정문제가 정부와 학계의 중요한

2) 何九盈, 『中國現代語言學史』 (廣東教育出版社, 1995), p.30.

문제로 대두되었다. 2년의 준비 끝에 1913년 2월15일 교육부는 『讀音統一會』를 정식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모두 44명이고 각 省의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남북 2파로 나누어 졌다. 南方출신회원들은 남방인 특유의 발음(傳統等韻學의 36자 중의 13개 탁음)을 "注音字母"(발음기호)에 포함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北方회원들은 이런 字母를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참석 회원 중에 江蘇, 浙江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회의는 각 省은 그 참석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표만 행사하기로 하여 그 결과 남방회원이 삽입을 주장한 字母는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남방회원의 주장에 따라 "入聲"을 "第5聲"으로 제정하였다. 이렇게 남북 발음을 절충하여 제정한 것이 "國音"이라고 하는 표준어였다. 회의 참석자는 3개월 동안에 6500여자의 발음을 심사하고 글자마다 발음방법을 붙여서 교육부에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3]

하지만 이러한 "國音"은 남북 발음을 종합한 것이게 때문에 실제로 발음하기 어려웠다. 1920년 上海에서 녹음한 『中華國音留聲機版』(중국 국어 축음기판)에서는 북경어의 四聲에 따르고 入聲은 去聲(4聲)을 짧게 받침이 있는 것처럼 읽었고, 1921년 趙元任이 미국에서 녹음한 『國語留聲機片』(국어 레코드판)에서는 陰平, 陽平, 上聲, 去聲을 北京音으로 읽었고 入聲은 南京音으로 읽었다. 하지만 이런 "국어"는 실제로 아무도 사용할 수 없었다. 趙元任은 "1922년 하버드대학에서 중국어강의를 할 때 나는 바로 이러한 중국어를 가르쳤다. 축음기판이 있고 없건 간에 세상에서 실제로는 쓰이지 않은 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13년 동안 이러한 4억, 5억 혹은 6억 사람에게 정해준 국어를 어처구니없게도 오직 나 한사람이 말하고 있었다"라고 회고한다.[4]

이러한 "사용자가 없는 언어"는 1913년에 통과된 후 곧 많은 이견이 제기되었다. 오랜 논쟁 끝에 1926년 교육부의 『國語統一籌備會』는 전에

3) 方師鐸, 『五十年來中國國語運動史』 (國語日報出版社, 1965), pp.20-27.
4) 何九盈, 앞의 책, p.31.

『讀音統一會』에서 발표한 "國音"에 대해 수정작업을 하여 "모든 발음은 일률적으로 北京의 보통 讀法을 표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정한 방안이 바로 "新國音"이다. 1932년 교육부에서 『國音常用字彙』를 공포하면서 "新國音"의 발음체계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정한 "國語"는 여전히 논란이 많았다. 南方音을 北京音을 중심으로 하니 또 너무 北京音에 치우친 다는 반발이 나온다.

北京音의 가장 큰 문제점은 古音의 상실이다. 따라서 많은 중국 古詩를 北京音으로 읽으면 平仄, 押韻이 안 맞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일부 漢字는 뜻이 다를 경우 古音과 方言에는 구별하고 있지만 北京音에는 구별이 없다. 예를 들면 "易"는 지금 "yi"로 읽지만 中世에는 ie("容易"의 易)와 iak("變易"의 易)으로 구분하고 廣東語에도 yih와 yek 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文人일수록 北京語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趙元任이 지적한다.[5]

사실 이런 문제는 國語입안자들도 알고 있었다. 『國音常用字彙』을 보면 어떤 韻文을 읽을 경우의 발음, "國音"과 北京音의 차이, 각종 變音현상 등을 설명, 규정하였다.[6]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지식보다 습관이어서 그것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늘 비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北京語를 기초로 하는 표준어가 중국에서 점차 자리를 잡았다. 1935년 國民黨정부는 『國語統一籌備會』를 철폐하고 『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를 신설하였고 그후 抗日戰爭, 國共內戰을 거쳐 1949년 대만으로 망명한 후에도 계속 "國語"를 추진하여 현재 아직까지도 대만의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다.

3. 普通話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 정부수립이후 표준 공용어는 국민당정부의

5) 趙元任, 「甚麽是正確的漢語」, 何九盈, 앞의 책, p.36.
6) 方師鐸, 앞의 책, pp.63-72.

것을 이어 받았다. 다만 정권교체, 정치이념 등 이유로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다.

우선 명칭부터 달라야 했다. 중국공산당 언어정책의 선구자인 瞿秋白은 일찍이 "國語"와 구별짓기 위해 "普通話"를 제창하였다.[7] 왜 "國語"라는 용어를 배척하는가? 중국역사상 "國語"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異民族이 침략했을 때였다. 즉, 중국을 점령하여 왕조를 새운 異民族이 그들의 언어, 예컨대 거란(契丹), 여진(女眞)족의 언어를 "國語"라고 불렀던 것이다.[8]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지향하는 瞿秋白도 "國語"를 상류계층, 지배관료의 언어로 규정짓고 인민의 언어는 그것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공산당이 새 정부를 수립한 후 일정기간의 토론 끝에 1956년 2월 國務院은 『關于推廣普通話的指示(보통화 보급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여 "普通話"를 중국의 표준 공용어로 정하였다. 중국정부는 普通話를 "北京語音을 標準으로 하고 北方話를 基礎方言으로 하며 現代白話文法을 語法規範으로 하는 漢民族의 공동언어"라고 정의하였다.

왜 北京語音을 표준으로 하는가? 대개 한 나라의 공용어는 그 정치, 경제의 중심지의 언어를 기준으로 한다. 중국은 金, 元, 明, 淸 4개 王朝를 거쳐 800년 동안 계속 북경을 수도로 하였고 北京語도 "官話"(행정용어)로서 전국 각지로 퍼져 각 方言지역 간의 공용어가 되었다. 방언학으로 볼 때, 北方官話는 漢語중 제일 큰 것이다. 그것은 4개의 次方言, 즉 北方方言(華北, 東北지역), 西北方言(陝西, 甘肅, 寧夏, 靑海지역), 西南方言(雲南, 貴州, 四川), 江淮方言(江蘇北部, 安徽 등 淮河流域)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분포 상으로 제일 넓고, 또 사용인구도 중국인의 70%가 넘는다. 또한 宋, 元부터 시작한 白話文學作品(話本, 戱曲, 小說 등 포함)도 北方語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러한 문학작품의 전파에 따라 北方語가 더욱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北

7) J. 노먼(Jerry Norman)저, 전광진 역, 『중국언어학총론』 (동문선, 1996), p.199.

8) J. 노먼, 앞의 책, p.197.

方方言을 기초로 하는 공용어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9]

하지만 중국당국이 늘 강조하는 것은 普通話는 北京語을 표준으로 삼지만 北京語가 곧 普通話는 아니라는 것이다. 普通話는 北京語외에도 기타 方言의 요소를 흡수하였기 때문에 어떤 방언보다 더 풍부하고 완벽하다는 것이다.[10]

따라서 1957년10월과 1959년7월 『普通話審議委員會』가 개최되어 漢字의 발음을 다시 정리하고 전에 지식인의 발음방식을 위주로 한 것을 인민대중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다.[11] 현재 대만의 "國語"와 대륙의 "普通話" 중 일부 한자에 대한 성조가 다른 것도 이러한 변화 때문으로 추측된다.[12]

III. 발음기호의 제정

1. 注音符號

한자는 표음문자가 아니다. 따라서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전에 중국사람은 주로 "反切"이라는 방법으로 한자의 발음을 표시했다. "反切"이란 다른 한자로 한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吐(tu)"를 "他魯"로 표시함으로서 이 "吐"자의 발음은 "他"자의 자음(t)과 "魯"자의 모음(u)을 결합한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反切"법으로 발음을 표시하는 위해서는 먼저 그 "反切"에 사용되는 한자를 알아야 하고, 음을 연결할 때 子音가운데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13] 중국의 주변 국가에서도 한자의 발음을 표시할 수 있는 표음문자

9) 林銀生, "中國語言文字改革工作簡介", 『중국의 전통과 현대- 개교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강남대학교, 1998), p.36.
10) 『辭海-語言文字分冊』 (上海辭書出版社, 1982), p.51.
11) 香坂順一 저, 정헌철 역, 『中國語學入門』 (고려원, 1986), p.115.
12) 예를 들면, 究(jiu4-jiu1), 期(qi2-qi1), 企(qi4-qi3) 등이다.
13) 胡裕樹 等編, 허성도 譯, 『現代中國語學概論』 (교보문고, 1994), p.57.

가 개발되었지만[14] 중국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 중세부터 서양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필요에 따라 최초로 중국어를 로마자로 표시하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라틴문자로 발음표시 된 책은 일부 신도들 사이에서만 유통되고 일반 중국인들은 몇몇 音韻學者 외에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淸나라 말엽, 중국이 서양 열강에 계속 패배를 당하자 중국인들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고심했다. 그들이 얻은 결론 중의 하나가 중국의 한자가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표음문자인 "切音文字"를 만드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淸王朝의 마지막 20년(1891-1911)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表音文字方案이 27개나 된다.[15]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경비로 책을 출판하고 학당을 세워 자신이 개발한 표음문자를 보급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차원의 표음문자 운동은 개인의 능력한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淸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된 후에야 정부차원에서 표음문자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1913년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 『讀音統一會』를 소집하였다.(앞 절 참조) 회의에서 표준어를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표준어를 표시할 수 있는 발음기호도 함께 정해야 했다. 당시 어떤 발음기호를 채택하는가에 대해서도 격론이 있었는데, 주로 한자의 偏旁(부수)을 따서 쓰자는 偏旁派, 새로 발음기호를 만들자는 符號派, 그리고 라틴문자를 차용하자는 羅馬字母(로마자)派 등 3가지 의견이 있었다.[16] 하지만 이때 淸末 切音文字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이 『讀音統一會』의 주류여서 그들이 한자의 필획을 참고하여[17] 만든 "切音文字"가 우세였

14) 예를 들면 일본의 가나(假名), 조선의 訓民正音, 몽고의 八思巴문자(Phags-pa alphabet) 등이다.

15) 何九盈, 앞의 책, p.40.

16) 方師鐸, 앞의 책, pp.22-23.

17) 예를 들면, ㄅ(b)는 包(bao)에서, ㄉ(d)는 刀(dao)에서, ㄋ(n)는 乃(nai)에서, ㄐ(j)는 糾(jiu)에서, ㄙ(s)는 私(si)에서 각각 따온 것이다. 方師

고 결국 대회는 표준어 字音 심사할 때 사용한 "記音字母"를 표준발음 기호로 통과시켰고 그 명칭을 "注音字母"라고 하였다.

그 후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표준어 제정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1918년에 비로소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注音字母』를 공포하고 전국 학교에서 보급시키도록 하였다. 또 사회에서도 注音字母로 음을 표시한 책을 대량 출판하여 국어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注音字母 약간의 수정을 거쳐 漢字의 표준 音標로 사용되고 있다.[18] 1930년 국민정부는 "注音字母"를 "注音符號"로 개칭하였고, 이 "注音符號"는 현재까지도 漢字의 발음기호로 대만에서 통용되고 있다.[19]

이로서 淸나라 말엽부터 개인적으로 전개해 오던 표음문자운동이 중화민국 수립이후 정부의 추진으로 일단락 지웠다고 할 수 있다. 注音字母는 한자를 대체하자는 표음문자운동의 최고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한자의 발음표시를 "反切"등 방법에만 의존해오던 중국인에게는 문자발전역사상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다.

2. 로마/라틴식 표기법

(1) 國語羅馬字拼音法式

앞에서 언급했듯이 『讀音統一會』에서 발음기호를 제정할 때, 일부 인사는 로마/라틴문자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비록 "注音字母"에 밀려 최초의 공식 발음기호로 제정되지 못했지만 로마자로 한자를 표시하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다.

1923년 국민정부 교육부의 『國語統一籌備會』에서 趙元任, 林語堂 등 언어학자를 위원으로 하는 『國語羅馬字拼音研究委員會』가 조직되어 중

鐸(1965), pp.23-27 참조.

18) 1919년부터 1923년까지 "國語統一籌備會"는 모두 5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1918년의 "注音字母"에서 3개의 자음을 삭제하고 1개의 모음을 추가하여 오늘날의 중국어 음표체계가 되었다. 方師鐸(1965), p.41.

19) 대륙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가 1958년 "漢語拼音方案"이 공포되기 전 까지 사용되었다. "漢語拼音方案"은 "注音符號"를 라틴문자로 표시한 것이지 새로운 음표체계는 아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방법을 고안했다. 1925년 『國語羅馬字拼音法式』이 제정되어 정부에 의해 『國音字母第2式』으로 공포되어 공식적인 표음기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國語羅馬字"에 대한 홍보가 미미하여 "國音字母第1式"인 "注音符號"만큼 보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어도 로마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서 향후의 拼音方案연구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2). 中國拉丁化新文字

"拉丁化新文字"는 瞿秋白, 吳玉章 등이 제정한 것이다. 瞿秋白은 1920년 소련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소련에서는 문맹퇴치 작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 정책의 하나로 라틴문자로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瞿秋白은 여기서 자극을 받아 라틴문자로 중국어를 표시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귀국 후 공산당 혁명운동에 전념하여 한동안 이 작업을 중단했다가 1928년 다시 소련에 갔을 때 소련에 있던 吳玉章, 林伯渠 등과 다시 한자개혁문제를 연구한 끝에 1929년과 1930년에 모스크바 중국노동자 공산주의대학출판사에서 『中國拉丁式字母草案』과 『中國拉丁化字母』를 출판하였다. 1931년 瞿秋白은 귀국하고 라틴어 字母는 吳玉章, 林伯渠, 蕭三 등이 이어받아 계속 연구하였다. 1931년 9월 소련의 중국공산당원들이 瞿秋白의 『中國拉丁化字母』를 약간 수정하여 정식으로 『中國的拉丁化新文字方案』을 제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이 "라틴화중국문자"로 소련 극동지구 중국노동자들을 상대로 문맹 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20]

1933년 蕭三의 『中國語書法之拉丁化』가 중국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라틴화운동이 중국 국내에서 점차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1934년 上海에서의 "大衆語" 토론 중에서 많은 사람이 라틴어신문자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大衆語 筆記法의 라틴화"를 주장하였다. 上海, 北京, 天津, 西安, 漢口, 홍콩 등 20여개 도시에 중국어 라틴화 연구회가 설립되었고, "新文字研究會" 등 70여개의 각종 관련 단체가 조직되었으

20) 『中國語言學家』 (河北人民出版社, 1986), p.104.

며 60여종의 관련서적이 10만부, 간행물이 40여종이나 출판되었다. 라틴어중국신문자의 추진운동은 진보문화계의 대단한 호응과 지지를 얻었다. 또 공산당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서도 라틴어 신문자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항일전쟁기간에는 延安에 "邊區新文字促進會"와 "陝甘寧邊區新文字協會"가 앞다투어 성립되었고, 華南의 新四軍 지역에도 "新四軍文字研究會"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라틴어 신문자운동은 공산당 신정부 수립전에 가장 광범위한 문자개혁운동이었다. 결국에 국민당정부에서는 라틴화 운동을 한때 금지하기까지 하였다가 1938년에 다시 금지령을 해제하였다.[21]

"라틴화 신문자"와 국민정부에서 발표한 "國語 로마자"는 그 字母, 音素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목적이 결정적으로 달랐다. "國語 로마자"는 "注音符號"처럼 한자의 음표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22] "라틴화 신문자"는 이것으로 한자를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瞿秋白는 공산당의 지도자이고, 또 인민들을 위해 간단한 신문자를 보급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하므로 공산당 지배하의 지역에서 라틴어 신문자가 장려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1937-1947년까지 공산당의 근거지인 延安에서는 문자개혁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문맹과 대항하여 싸우는데 있어서 신문자는 강력한 무기이긴 하지만 전통문자를 하루아침에 갈아치울 수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라틴문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더욱 중요한 것은 방언의 "라틴문자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틴화"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 될 때 이미 많은 사람은 北方音을 기초로 한 "라틴신문자"로 남방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

21) 何九盈, 앞의 책, p.55.

22) 물론 "國語로마자"를 만든 사람도 궁극적으로 漢字를 대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정부가 이를 공포할 때 "단지 注音에만 사용하고 造字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후에 공산당 정부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정말로 남방의 문맹을 교육시키려면 남방음을 기초로 한 라틴문자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방언문자가 만들어지면 분열의 빌미가 되고 엄청난 정치적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공산당 지도자가 이러한 문제를 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라틴화"운동 초기에 "방언의 라틴화"를 지지하는 공산당의 선전이 1940년 이후 그 자취를 감췄다. 1944년, 라틴문자의 철자법을 가르칠 교원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산당 지배지역의 라틴화 추진 운동은 사실 종결되었다.[23]

3. 漢語拼音方案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한 후, 언어문자 정책의 제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대표단을 북한, 베트남으로 보내 양국의 문자에 대해 고찰하였고 많은 사람은 여전히 한자폐지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毛澤東이 운동을 주도하는 『中國文字改革協會』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면서 끝을 맺었다. 毛의 지침은 "문자개혁은 현실과 떨어져서도 안되고 과거와 단절되어서도 안 된다; 신문자를 만드는 것은 포기하고 문자개혁은 漢字의 簡化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24]

이로서 중국 건국 초기의 문자개혁은 "漢字簡化"로 집중되었지만 중국어 발음 표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되었다. 이에 관해 毛澤東이 "민족형식의 拼音文字를 중국문자개혁의 방향으로 삼는다"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처음의 방침은 "注音符號"와 같은 한자의 형체를 최대한 살리는 자모를 만들고자 했다. 학자, 전문가의 연구 끝에 열린 1955년의 『全國文字改革會議』에서 4개의 注音字母(漢字筆劃)方案, 슬라브식 字母方案, 라틴식 字母方案 등 6개의 방안이 제출되었는데 여러 차례 토론 후 라틴식 字母方案이 채택되었다.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1956년 『漢語拼音

23) J. 노먼, 앞의 책, 374-376.
24) 홍인표, 『중국의 언어정책』 (고려원, 1994), pp.96-98.

方案(草案)』을 공포하고 1958년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漢語拼音方案』을 정식 통과하였다.[25]

이후 『漢語拼音方案』은 중국에서 표준 발음기호로 자리잡아 왔다. 1979년 6월 UN 사무국은 "漢語拼音"을 중국 인명, 지명을 표기하는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9월 UN 제3차 『地名標準化會議』에서도 "漢語拼音"을 중국지명 로마문자표기법의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다. 또 1982년 국제표준기구는 ISO-7098호 문건을 발표해 『漢語拼音方案』을 전 세계에서 문헌작업을 할 때 중국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국제표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26] 따라서 『漢語拼音方案』은 중국표준에서 국제표준의 지위를 얻은 것이다.

IV. 漢字의 簡化

근대 중국의 문자개혁운동은 한자가 너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틴문자로 한자를 대체하자는 급진적인 노력은 좌절되었지만 어려운 한자를 쉽게 하려는 노력은 계속 추진되었다.

1949년 이전의 문자개혁운동은 한자폐지가 주류였기 때문에 한자를 간화시키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한자 간화운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27]

1952년, 『中國文字改革委員會』가 성립되었고 1955년 『漢字簡化方案草案』을 발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국적으로 언어교사, 교육담당자 20만명이 참가한 토론 끝에 위원회는 『漢字簡化方案』을 제정하여 1956년 國務院에 의해 정식 공포하였다. 『方案』은 515개의 한자를 簡化시켰고, 또 1055개 異體字를 통폐합시켰다. 1964년, 文字改革委員會

25) 홍인표, 앞의 책, pp.136-138.
26) 홍인표, 앞의 책, p.146.
27) 중국학자들은 漢字簡化는 甲骨文이래 계속 추진되어 왔고, 民國정부때도 민간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왔다고 설명한다. 林銀生, 앞의 글, pp.17-21.

는 『簡化漢字總表』를 발행하여 簡化된 偏旁(부수)로 繁體字를 한 차례 더 簡化시킨 2236개의 한자를 수록하였다.[28]

한자 簡化의 방식은 주로 4가지다:

(1) 繁體字의 복잡한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 예를 들면 寧->宁, 麗->丽;

(2) 繁體字의 간단한 부분을 보류하고 복잡한 부분을 간화하는 것; 예를 들면 歡->欢, 壞->坏;

(3) 일부 획을 생략하되 繁體字의 윤곽은 보존시키는 것; 예를 들면 馬->马, 長->长;

(4) 繁體字의 외관과 많이 다른 簡體字로 繁體字를 대체; 예를 들면 聽->听, 擊->击.

이러한 간화를 거친 후 한자의 획수가 많이 감소되었다. 『簡化漢字總表』의 한자를 보면, 간화전의 繁體字의 평균 획수는 15.6획인데 간화후의 簡體字의 평균획수는 10.3획이므로 평균 글자당 5.3획 감소한 샘이다.[29]

1977년 文字改革委員會는 또 『第二次漢字簡化方案(草案)』을 공포하여 추가로 1116개 繁體字를 간화시켰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나친 간화라는 비판을 받아 여러 해의 심사 끝에 결국 1986년 폐지되었다. 이와 동시 중국 國務院은 "향후 漢字의 簡化에 대해 근심한 태도를 취하여 漢字의 形體가 일정기간동안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가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시를 내려 그 후 더 이상의 간화는 없었다.[30]

V. 결 론

이상으로 현대 "표준중국어"의 제정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요컨대, 중국의 표준어는 근대적 산물이다. 이전에도 행정적인 공통어가 있

28) 裘錫圭, 『文字學概要』 (萬卷樓出版社, 1995), pp.316-317.
29) 林銀生, 앞의 글, pp.22-23.
30) 裘錫圭, 앞의 책, p.317.

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준화하려는 시도는 근대 제국주의의 침략이 있은 이후부터이다.

1912년 中華民國 수립이후 표준어가 제정되었고 정부도 그것의 보급에 계속 노력해 왔다. 그 뒤의 中華人民共和國 정부도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 표준어만큼은 그대로 이어 받았다. 그 후 대만과 대륙은 정치적인 대립상황 하에서 각각 國語/繁體字와 普通話/簡體字라는 두 체계로 발전해 왔다.

사실 國語와 普通話는 일부 어휘가 다를 뿐 발음, 문법체계는 똑같다. 따라서 오늘날 北京音을 기초로 하는 표준중국어(國語/普通話)의 지위는 확고하게 자리잡혔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문자를 보면, 繁體字는 아직도 簡體字와 같이 "중국문자"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다른 문자로 漢字를 대체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어"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우선, 문자를 보면, 현재 전 세계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한자는 繁體字와 簡體字 두 가지다. 한 쪽에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쪽의 글을 보면 처음에는 습관이 안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양쪽 다 이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중국이 개방하고 홍콩, 대만의 기업인이 대륙에 대거 진출하면서 중국사회에도 번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 중국정부의 1990년대 이후 번체자 간판에 대한 단속까지 했지만 거리에서는 여전히 많이 보인다. 반면, 홍콩은 물론이고, 대만에서도 간체자 서적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대만과 대륙은 아직도 서로 간체자와 번체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 안하고 있고 (홍콩은 간체자도 통용되지만 아직 번체자 위주임) 이런 대립이 지속되는 한 번체자와 간체자의 양립태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행히 과학 기술의 발달로 향후 컴퓨터 상에서 양자간의 호환은 갈수록 용이해 질 것이므로 의사소통의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의 경우, 대만, 대륙 정부 모두 표준어 보급에 노력을 기울어 왔지

만 아직도 방언의 지위는 별로 실추되지 않았다. 물론 그 동안의 보급으로 대만이나 대륙이나 사람들은 표준어로 타지방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그 능력이 떨어진다. 上海나 廣州같은 대도시에서도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방언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중국정부나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표준어의 목적은 전 국민이 의사소통할 수 있기 위한 것이지 방언을 말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1]. 따라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전 국민이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하고 같은 지역사람끼리 방언을 쓰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 매스컴, 통신의 발달로 표준어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반대로 각 지역의 방언은 아마도 조금씩 쇠퇴하게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방언은 더욱 빨리 위축될 것이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강세인 지역, 예컨대 上海, 廣東은 그 방언을 더 오래 동안 유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방언 사용인구를 보면 아직 방언이 소멸될 염려는 없다고 본다. 다만, 매스컴, 통신이 더 보급되고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더 활발해지면 방언의 사용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

31) 중국학자는 언어의 "標準化"보다 "規範化"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표준화"는 강제성을 띤 것이고, "규범화"는 권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부나 학자는 늘 모든 방언, 소수민족언어를 존중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普通話"도 "共用語"라고는 하지만 "標準話"라고 하지 않는다. 陳原, 『在語詞的密林裡--應用社會語言學』(臺灣商務, 2001), pp.493-494 참조. 본 논문은 편의상 "표준어"로 부른다.

<參考文獻>

J. 노먼(Jerry Norman)저, 전광진 역. 1996. 중국언어학총론. 서울: 동문선.
香坂順 · 저, 정헌철 역. 1986. 중국어학입문. 서울: 고려원.
胡裕樹 외편, 허성도 역. 1994. 현대중국어학개론. 서울: 교보문고.
홍인표. 1994. 중국의 언어정책. 서울: 고려원.
林銀生. 1998. "中國語言文字改革工作簡介", 『중국의 전통과 현대-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강남대학교).
何九盈. 1995. 中國現代語言學史 (廣東教育出版社)
方師鐸. 1965. 五十年來中國國語運動史 (國語日報出版社).
辭海-語言文字分冊. 1982. (上海辭書出版社).
中國語言學家. 1986. (河北人民出版社).
裘錫圭. 1995. 文字學概要 (萬卷樓出版社).
陳原. 2001. 在語詞的密林裡--應用社會語言學 (臺灣商務).